



신세계
박주형 체제로
젊은인재 배치
나



Life

아모레퍼시픽
“70년 향기의 여정
체험해보세요”
L2



“물류현장 속 첨단기술 구축… ‘n커머스’에 대응”

강연

박 철 수 아워박스 대표

3PL 넘어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
모든 커머스 활용 가능 기술 만들 것

요즘 물류현장에는 사람이 적다. 그림에도 실수가 없고 더욱 꼼꼼해졌다. 다양한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판단과 계수, 결과 보고는 첨단 기술이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대표가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진행한 ‘2023 물류&모빌리티 포럼’에서 아워박스를 예로 최근 물류현장에



박철수 아워박스 대표가 강연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서 적용 중인 첨단 기술을 전했다. 아워 박스는 4PL(Fourth Party Logistics) 기업으로 최근 가장 주목 받는 물류 기업 중 하나다.

아워박스는 3PL의 형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거래기업의 업무 단계를 획기적으로 줄인다. 과거 3PL에서는 1개의 주문에 대해 거래기업과 물류 담당사가 각기 역할을 나눴다. 물류기업은 상품을 피킹·패킹 후 출고와 배송, 송장 번호 회신만을 담당했다. 아직은 다소 생소한 4PL, 풀필먼트 서비스가 3자 물류와 다른 점은 모든 과정이 풀필먼트 센터 내에서 일어나고, 거래기업의 역할은 품목 입고만을 담당한다는 데 있다. 유한킴벌리, 신세계푸드, 오투기, 삼성물산 등 굴지의 대기업들과 수많은 개인, 중소기업을 거래사로 월 10만 건 이상 주문을 처리하는 아워박스의 비결은 인공지능(AI) 등 IT 첨단기술이다.

박대표는 “우리가 파악하기로 1개의

기업 또는 판매자는 대략 20개 플랫폼에서 판매를 진행하는데 이는 실시간 주문을 모두 집계하고 처리할 수 있는 IT기술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뜻”이라며 “우리가 구축한 ‘오더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고객사의 자사물과 다양한 판매 채널에서 주문서를 실시간으로 당겨오고,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송장번호를 출력해 배송 단계로 인계한다”고 설명했다.

첨단 기술을 통한 풀필먼트 서비스는 업무량을 줄이는 데에서 더 나아가 고객사의 매출증대와 소비자의 만족에 이른다.

아워박스는 3D 비저닝(3D Visinng)을 통해 기존 상자 단위로 이루어졌던 체적 기준을 바꿨다. 둥근 형태까지 인식해 이를 계산하고 포장 형태까지 추천하는데, 이러한 기술은 기업에 상품 보

관을 위한 CAPA를 높이고 불필요한 포장을 방지함으로써 탄소배출을 절감한다.

현재 고객사 중 한 곳인 동원은 아워 박스가 한 달에 약 35만 개에서 40만 개의 상자를 처리하고 있다. 모든 단계에 다양한 첨단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당일 출고율을 이전 대비 11~13% 증가시키자 동원 전체의 e커머스 소비자 불만 제보가 70% 줄었다.

박대표는 “지금 현재는 e커머슴지만 앞으로 어떤 형태의 커머스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우리의 비즈니스를 엔 커머스(n commerce; 미지수 n) 서비스 기업으로 이름 붙였다”며 “풀필먼트는 고도의 IT 기술 현장이다. 어떤 커머스트든 가능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수소모빌리티 전환… 액화수소 공급망 구축해야”

강연

김 서 영 하이리움산업 대표

물류업계 탄소중립에 수소생태계 확대
안전성 위해 액화수소 유통망 필요

김서영 하이리움산업 대표는 물류업계가 탄소 중립을 추진하면서 수소 생태계도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안전하게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공급망을 고기압 기화수소가 아닌 액화 수소 중심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대표는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김서영 하이리움산업 대표가 강연을 하고 있다.

(KRX)에서 주최한 ‘2023 물류 & 모빌리티 포럼’에서 ‘물류 탄소중립과 수소 모빌리티’를 주제로 두번째 강연을 했다.

김 대표는 물류산업에서도 탄소 중립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설명하며 강

연을 시작했다.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에서 물류 산업 비중이 22%에 달한다며, 유럽을 비롯한 정부가 물류에도 탄소 배출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제조 업체들도 RE100을 위해 탄소 중립 물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물류업계에서도 탄소중립을 재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년까지 해운 탄소중립을 결의하는 ‘획기적 사건’이 일어났으며, 2050년에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배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때문에 물류업계가 수소모빌리티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역사적으로 에너지가 석탄과 석유, LNG 등 탄

소에서 벗어나며 발전해왔던 상황, 저장이 어려운 전기와 함께 수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수소모빌리티 전환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대표는 수소 트럭 가격이 5년 안에 내연기관보다 저렴해질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며, 조선 업계에서도 수소를 활용한 선박을 서둘러 개발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런 수소가 적도 10년 이내에 1kg당 1달러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특히 미국 보잉이 2035년 액화 수소 탱크를 장착한 민항기를 출시할 예정이라며, 추후 수소 항공기가 대중화되면 2060년에는 대형 공항에 하루에만 수소 700톤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수소 생태계 구축에서 뒤쳐져 있었지만,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경쟁

력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대자동차가 1990년대부터 개발을 시작해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를 상용화하고 수소 트럭으로 이어가는 상황, 올해 말부터는 하루에 액화수소 120톤을 만들며 전세계에서 2번째 생산국가로 올라선다며, 수소 충전소 등 공급망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안전한 수소 시대를 위해서는 유통망도 액화수소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에서는 1기압에서 액화질을 만들어도 운반 과정에서 고기압으로 변환하는 탓에 폭발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우려를 심어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김대표는 앞으로 액화수소 생산량이 급증하는 만큼, 공급망에서도 액화수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재웅 기자 juk@

“복잡도 높은 라스트 마일, 빅데이터·AI 적용될 것”

강연

최 규 범 로지올 부대표

소비자보다 참여자가 중요한 생태계
인력효율화, 전기바이크 등 방안 모색

최규범 로지올 부대표는 “라스트 마일(Last mile)은 굉장히 복잡도가 높고 비용 역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구간이다. 인건비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이 앞으로 더 많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대표는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최규범 로지올 부대표가 강연을 하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주최한 ‘2023 물류 & 모빌리티 포럼’에서 ‘Lastmile, EV and ESG’란 주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숙련된 라이더(배달기사)와 AI배차가 대표적이다. AI배차는 교통법규를

완전히 준수하는 수준에서 배달 동선을 그린다. 그런데 배달기사는 시간 때문에 가끔은 신호를 무시하기도 한다. 도로나 운동장을 가로지르기도 한다. 스피드 경쟁에선 어떻게 모르겠지만 AI가 적용된 예다.

배달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사람’과 ‘비용’이다.

최 부대표는 “배달 플랫폼 회사 입장에서 라스트마일의 복잡도를 개선하면서 인력의 개입을 최소화해 결론적으로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면서 “인력은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하겠지만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달 산업은 소비자 개입이 상당히

제한적인 대표적 분야다.

‘생각대로’를 운영하고 있는 로지올은 ‘분리형 배달 플랫폼’(배달중개+배달중개) 영역에 속한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 잇츠 등은 ‘통합형 배달 플랫폼’(주문중개+배달중개)에 포함된다.

최 부대표는 “고객이 주문 플랫폼으로 음식을 시킬 때 묶음배달, 알뜰배달 등의 형태는 선택할 수 있지만 나는 이 배달을 어떤 업체에서 배달받겠다”를 선택할 순 없다. 배달영역은 이처럼 소비자보다 생태계 참여자들이나 배달 라이더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생태계가 작동하는 특수한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때문에 플랫폼 운영사들은 ‘참여자’가 가장 중요하다.

최 부대표는 “코로나19 이후 배달시장이 침체되고 생태계 참여자들의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생태계

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라고 전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음식 배달 산업 규모는 코로나19가 발발한 2019년 당시 약 9조7000억원에서 지난해엔 26조6000억원에 바짝 다가섰다. 하지만 올해는 같은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그래서 로지올이 찾은 답은 이륜전기차다. 로지올은 계열사인 닷스테이션을 통해 대만의 전기바이크 회사 ‘고고로’와 독점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최 부대표는 “전기바이크는 유지비용을 기존 바이크에 비해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다. 배달 시장 침체로 자영업자들은 수입이 감소했어도 비용이 줄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순수익을 유지하거나 더 나아질 수 있다. 생태계 참여자와 상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차현정 기자 bada@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복통 호수’ 김하성, 사흘 연속 선발 라인업 제외
▲배지환, 4타수 무안타 침묵…시즌 타율 0.236

/사진 뉴시스

▲오타니, 팔꿈치 수술… 내년 타자·2025년 투수 복귀 목표
▲최지만 불넷·사구로 멀티출루…샌디에이고 뒤늦은 6연승



▲이강인 21일 합류 확정…드디어 ‘완전체’ 되는 황선홍호
▲문도업, KPGA ‘iM Bank 오픈’ 2연패 정조준

/사진 뉴시스